

技術情報 토막消息

◇Raufoss 社의 M72-750 改良 LAW◇

놀웨이의 Raufoss 社는 1968 年이래 美國에서 설계한 M72 LAW(輕對戰車武器)를 美國밖에서 제조하는 유일한 會社이다. 이 LAW는 1960 年代初부터 100 만發 이상이 생산되었는데 이 會社는 命中率과 貫通力이 좋은 型을 開發하였다.

그것은 소위 M 72-750 라는 것으로, 標準型 M72 A3의 砲口初速이 147 m/秒인데 비해 750ft /秒(228 m/秒)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美陸軍은 Viper 對戰車武器의 中間代替裝備 혹은 交替장비로서 1983 年 중반에 이 改良型에 대한 評價를 하게될 것이다.

Raufoss 社는 M72-750 事業을 하는데 3 個의 美國會社와 合同作業을 하고 있다. Tracer MBA 社와는 彈頭, Norris Industris 와는 發射器(이 會社가 M72 A3型을 만들었다), 그리고 Talley Industries 社가 관여하고 있다. Raufoss 社는 이 武器에 대한 革新的 改良과 로켓 모우터의 性能向上 및 새로운 彈頭충진에 대한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M72-750은 모우터와 彈頭의 性能을 증대시키기 위해 現用 M72 發射器의 餘裕空間을 사용하도록 設計되었다. 보다 큰 모우터로 砲口初速을 증대시켜 특히 移動標的에 대한 命中率을 향상시켰으며 改良된 彈頭는 貫通力を 크게 했다.

M72 A3의 M18 A1 彈頭와 비교할 때 M72-750을 위해 개발된 彈頭型은 지름이 커진 뒤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發射管을 가득 채우고 강하시켰다. 또한 信管도 강화되고 길어져서 機能時間이同一한 武裝거리 범위내에 있도록 개량되었다. 설치되어 있는 彈頭突出部는 起爆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다.

로켓 모우터가 약간 길어졌고 지름이 커져서 사실상 發射管을 가득 채우게 한다. 이로써 推進劑棒이 더 소요되어 19 個로부터 37 個로 늘어났다. 그리고 더 커진 木部分의 지름으로 해

서 排氣가스의 팽창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모우터벽의 두께는 그만큼 두꺼워졌지만 M72-750 모우터內의 壓力은 모든 溫度에 있어 M72 A3와 같은 壓力水準으로 유지된다. 모우터 點火器는 改良모우터를 위해 改善되었고 發射器의 안쪽 管이 강화되었다.

커진 모우터가 發射管에 꼬 끼이게 되므로 모우터 케이스外部에 安定날개를 장치할만한 空白이 없다. 그래서 M72 A3에서 사용되는 6 個의 큰 날개대신에 모우터 목부분과 發射管과의 사이에 8個의 날개를 장착했다. 또 다른 改良은 방아쇠 장치의 방아쇠 당기는 느낌이 포함되는데, 이는 操作手가 發射하는 순간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M72 A3는 溫度補償式 照準장치를 가졌지만, 美육군이 Viper 에서 사용되는 照準器를 좋아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Raufoss 社는 M72-750에 Viper 와 비슷한 것을 택했다. 가늠자는 노브를 돌려 上下로 움직일 수 있게 했고, 가늠쇠는 推進劑의 溫度變化에 기인하는 性能의 差를 조정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했다.

Raufoss 社는 282 門의 M72-750 對戰車武器를 確認試驗하기 위해 제조했다. 그중 90門은 환경시험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菲료한 推進劑의 정확한 量과 같은 제반 變數를 會社에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결과에 따라 改良된 것을 1982 年 12 月부터 1983 年 1 月까지 430 門에 대해 재시험을 하게될 것이다.

그래서 이 會社는 3 月 31 日까지 美육군에 70 門을 納品하기 전에 앞으로 180 門에 대해 美육군標準에 따른 로트受諾시험을 완성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武器는 美國에서 여름동안에 시험평가하게 될 것이다. Raufoss 社의 主張은 M 72-750 을 大量生產을 위한 注文을 받으면 M 72 A3 보다 30% 정도밖에 單價가 더 추가되지 않으며, Viper 의 $\frac{1}{5}$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M72-750의 완성장비의 무게는 약 3 kg 인데 M72 A3의 무게는 2.4 kg 이다. 그러나 裝甲貫通力은 약 25% 증대된다. 또한 會社에 따르면 戰闘射距離內에서의 命中率은 거의 3倍나 증가된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1983)